

보도 일시	2022. 8. 24.(수) 09:00	배포 일시	2022. 8. 24.(수) 09:00
담당 부서 <총괄>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담당자	사무관 고희영 (044-203-2564)

한중 문화교류, 미래를 여는 동행으로 이어진다

- 한중 수교 30주년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기념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8월 24일(수)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한중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연극, 분야별 문화콘텐츠 소개 '월간 한중' 제작, 미술 온라인 전시, 청년 국악단 중국 현지 활동, 민간 문화교류 사업 지원 등을 이어간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한 바 있다. 이에 작년부터 공식표어(슬로건)인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중문: 文化增友谊, 同行创未来)'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의 여정을 함께한 양국은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수교 이후 30년간 쌓아온 우정을 확인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수교 30주년 기념 현장, 온라인 공연으로 양국의 다양한 음악 소개

먼저 수교 30주년 기념일인 8월 24일(수)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중국을 대표하는 첼로 연주자 지안 왕, 바이올린 연주자 닝 평이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번호 14번',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 33번' 등으로 함께 무대를 꾸미며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는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하면서 입장권을 신청받았는데 모든 좌석 신청이 완료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문체부와 중국 문화여유부는 8월 24일(수) 오후 8시 30분(한국 시각), 온라인 음악회도 개최한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중국의 ‘모리화’를, 중국국가교향악단은 한국의 ‘아리랑’을 나란히 선보이며 양국의 우정을 다질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공연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c/korchnyear>)와 네이버티브이(TV), 중국의 시시티브이(CCTV) 공식 온라인채널인 시엔티브이(CNTV), 문화여유부 온라인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한중 미래세대 간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 관계 증진

한중 공연예술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들의 무대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한국 한양대학교와 중국 6개 지역대학교 학생들은 양국 문화를 소재로 창작연극을 함께 제작한다. 이번 합동공연은 10월 29일(토) 오후 3시와 7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오른다. 특히 전 회차 공연에 수어 통역과 자막을 제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람환경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매월 미술, 애니메이션, 영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사가 양국의 매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온라인에 소개하는 ‘월간 한중’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달에는 2022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인 한국 경주시와 중국 지역 전통술을 주제로 ‘월간 한중’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월간 한중’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행사 등과도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아리랑 티브이(TV)와 중국 안후이티브이(TV)는 양국 청년(MZ)세대의 문화를 비교하는 4부작 특집 프로그램 ‘한중 엠제트(MZ) 신라이프스타일’을 9월과 10월에 방송할 예정이다.

시각·전통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공감과 소통 강화

양국 수교 이후 30년간 시대별 미술 동향과 작품을 알아보는 전시회도 마련했다. 양국 시각예술 작가 30명이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신뢰를 돈독히 하자는 의미를 담은 전시 ‘오픈 업(Open Up)!’이 8월 24일(수)부터 10월 23일(일)까지 온라인(www.kode.or.kr)에서 열린다.

중국 현지에서도 문화교류 활동이 펼쳐진다. 주중한국문화원의 초청을 받은 한국 청년 국악단은 8월 24일(수), 베이징에서 열리는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연을 시작으로 텐진, 시안, 청두 등 중국 전역을 순회하며 시나위, 판소리, 한국 무용 등을 공연해 우리 전통음악과 춤을 알린다.

미술, 애니메이션, 음악, 도예 등 민간의 우수한 문화교류 사업 발굴 지원

문체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간의 우수한 한중 문화교류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중 미술작가가 참여하는 ‘한중 미술 교류전(9월)’, ‘중국 애니메이션 특별전(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10월)’, 한국 오케스트라와 중국 전통악기 연주자가 협연하는 ‘한중 갈라콘서트(10월)’, 한중 도예 작가가 참여하는 ‘한중 도예 교류전(12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문화콘텐츠 교류는 양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다.”라며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 30년 동안 이어온 문화교류와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에 기반한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 하반기 행사목록

따로 붙임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담당자	사무관 고희영 (044-203-2564)
<공동>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상호문화교류팀	책임자	부장 김도연 (02-3153-1758)
		담당자	팀장 여현경 (02-3153-1783)





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하반기 주요행사

기념공연

- 한국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중국 클래식 연주자(첼로 지안 왕·바이올린 닝 핑) 협연 공연 (8.24.(수) 20:00~22:00/롯데콘서트홀)
- 한국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중국교향악단의 온라인 음악회(8.24.)

차세대 교류

- 한중 연극 분야 대학생 창작공연(10.29./국립극장)
- 한중 아동문학(그림책) 작가 온라인 교류·전시(10월)
- 한중 청소년 가상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1월)

디지털 교류

- 매월 장르별(주(酒), 미술, 애니메이션 등) 한중문화를 소개하는 온라인 '월간한중'(8.31.~12월)
- 한중 MZ세대 문화교류 특집방송(9~10월 방영/아리랑TV 제작, 중국측 안후이TV 송출)
- 방한 관광 콘텐츠를 소재로 하는 한중 온라인 관광교류(연중)

예술가 교류

- 한중 현대미술작가 30인 온라인 작품교류전(8.24.~10.23./www.kode.or.kr)
-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계기 중국 희극 기반 작품 초청(10.15.~23./성북동 라이트하우스)

공공분야 협력

- 국립현대미술관과 중국미술관 <20세기 중국미술 국제학술대회>(10.15.)
- 한중국립도서관 온라인 교류 (주제발표, 세미나, 현안 토의 등 11월)

민간분야 지원

- 탐라풍류도 미리내, '전통음악회'(8.31./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
- 한중미술협회, '한중 미술교류전'(8~11월/한중 양국)
-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중국 애니메이션 특별전'(10.21.~25./CGV부천, 한국만화박물관)
- 추계예술대학교,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 초청 '한중 갈라콘서트'(10.26./추계예술대학교 창조관 리사이트홀)
- 생각하는정원, '한중 친선 교류의 밤'(10.29./생각하는정원)
- (사)한국음악협회, '한중 전통문화예술교류제'(11.11./로운 아프리움)
- (사)한국국제문화교류원, '한중 도예교류전'(12.6.~16./이천 에스파크)

중국 현지 공연 지원

- 주중한국문화원 초청 한국 청년국악단 장기 순회 공연(8~11월/중국 전역)

*상기 사업별 일정/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